

촛불: 신성한 보호 공간에서의 의식화의 상징

Candlelight: Symbol of Consciousness in Holy Protective Space

이 나 경*
Lee Na K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ymbolism of candlelight that is frequently observed in sand pictures. Candlelight represents light in the darkness of life, bright future, vitality of sun, or uncertainty and evanescence of life that can easily vanish. Birth and death of human being is compared to creation and extinction of candlelight. Candlelight that is lit at deathbed breaks darkness of death and it symbolizes the light in afterlife. As for the existing method of candlelight, it reveals its nature by burning itself. Hence, candle, which completes its existence through an encounter with flame, is an important symbol that shows birth, death, resurrection, and holiness. This study examined the symbolism of 'candlelight' from an aspect of analytical psychology by dividing into 'Temenos' as a holy protective space, 'Initiation' to death that is encountered at the process toward regeneration, and 'Consciousness' that naturally begins a noble evolution by converting unconscious characteristics of Self to be conscious. The paper analyzed the symbolism of candlelight by examining the sand pictures of client.

Key words : candlelight, temenos, initiation, consciousness

* 마리아동가족상담센터 상담연구원 (Inkya@hanmail.net)

I. 서 론

촛불은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신성함을 상징한다. 촛불은 인생의 어둠속의 빛, 광명, 태양의 생명력, 또는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생명의 불확실함, 덧없음을 뜻하고 임종 시에 켜는 촛불은 죽음의 어둠을 밝혀주며 내세의 빛을 상징한다. 촛불 켜기는 가톨릭 교와 대부분의 동양식 장례에서 행해진다(Cooper, 1978). 촛불의 이러한 상징성으로 인해 인간은 생일을 맞이하면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 나이에 맞게 촛불을 켜고 끄는 의식을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의식에 있어서도 촛불을 켜고 끄는 의식을 한다.

촛불의 존재방식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그 본성을 드러내고 초는 불꽃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의 존재를 이루어낸다. 불꽃은 태양을 상징함으로 그 역동의 생명력을 갖는다. 인간은 화산분출, 번개, 벼락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 최초로 불을 경험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시인은 불꽃의 기원을 하늘로,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본다. 원시종교에서 태양은 신이다. 그러므로 불꽃을 신성시하는 것은 결국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지상의 불꽃은 이렇게 태양신을 상징하게 되었으며 불이 지상으로 도래한 것은 하늘의 계시라 믿었다. 이것을 원인으로 불꽃은 종교의식 속에 인간과 신을 잇는 중요한 매개의 수단이 되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종교의례나 올림픽 경기 등의 점화식에서 볼 수 있다(Cooper, 1978).

불꽃은 우주의 에너지를 충만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시인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불을 신성시하며 밤낮으로 그 빛을 밝히고자 했다. 이것은 어두워진 후에도 태양의 대리자인 불꽃을 통해 자신들의 영혼과 무의식의 세계에 에너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꽃은 영혼과 무의식의 세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이다(Friedman 외, 2011). 이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초는 불꽃의 형태로 존재할 때 비로소 생명의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촛불은 종교적 성격이 강하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종교적인 집회소에서 불은 위대한 신령이 사는 성스러운 중심이다. 불교에서도 촛불은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며 촛불의 수직적인 빛의 상승을 통하여 인간의 뜻이 하늘로 올라가며 하늘의 뜻 또한 촛불을 통해 계시된다고 본다. 기독교에서는 촛불은 종교적 열정과 순교를 뜻한다. 또 예수의 '몸'을 상징하고, 불은 '영원한 삶'으로의 변화, 즉 예수의 '부활'을 의미한다. 불의 혀(사도행전, 2:3)는 성령의 강림, 신의 소리, 신이 내리는 계시를 뜻한다. 힌두교에서는 초월적인 빛과 지식, 예지가 가지는 활력을 뜻한다. 유대교에서는 모세의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인 <메노라 Menorah>(“출애굽기” 25:31-40)는 신이 있음을 나타낸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촛대의 일곱 개의 가지는 태양과 달과 혹성, 일주일 안의 칠일, 복두칠성, 세계에 존재하는 일곱 개의 주기나 힘을 나타낸다. 고대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에 따르면 <메노라>는 천상

적인 모든 사물에게 내려지는 은총을 뜻한다. 카발라에서 세 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나 세 개의 양초는 세피로스(SEPHIROTH)의 예지와 엄격함을 뜻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한다(Cooper, 1978).

촛불은 초와 불꽃의 만남이다. 둘의 만남을 통해 촛불은 어둠과 빛, 탄생과 죽음, 상승과 하강의 대극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촛불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촛불의 의미에서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탄생과 죽음 즉, 대극적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이다.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내담자는 촛불을 통해 탄생과 죽음의 정서를 만날 수 있었다. 내담자는 방안을 어둡게 한 뒤 촛불을 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히 밝혀진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보며 조용하게 혹은 오열하듯 눈물을 흘리는 모습, 신비한 듯 행복하게 바라보는 모습, 어둡게 굳은 표정의 모습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했다. 이들은 촛불을 통한 신성한 의식 안에서 자신의 무의식적 삶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촛불'의 상징성을 신성한 보호의 공간으로의 '테메노스', 재생을 위한 과정에서 만나는 죽음으로의 '이니시에이션' 그리고 자기 안의 무의식적 특성을 의식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레 고귀한 진화를 시작하는 '의식화'로 나누어 분석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내담자의 모래그림에 나타난 촛불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촛불의 특성

촛불은 파라핀이나 밀랍 등으로 된 고체 연료와 심지로 이루어진 광원 또는 연료를 말한다. 촛불을 켜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양식 초를 양초(洋-)라고 부른다. 19세기 이전까지 양초는 대개 우지로 만들었으나, 오늘날은 대부분 파라핀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양초에 불을 붙이려면 성냥의 열로 양초를 녹여 일부를 기화시켜야 한다. 불이 붙은 후에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타면서 불꽃을 만든다. 불꽃에서 나는 열로 양초가 스스로 녹게 된다. 녹은 양초는 모세관 현상에 의해 심지를 따라 위로 올라가서 기화되어 계속 불꽃을 유지한다. 양초는 생일이나 결혼식, 종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로마에서 1세기 즈음 양초는 쇠기름과 꿀풀 줄기의 속으로 만들어졌다. 라틴어 낱말 "candere"는 빛이 어른거린다는 것을 뜻한다. 기원전 3,000년에 이집트, 크리티 사람들은 일찍이 밀랍으로 초를 만들었다. 초기의 양초는 다양한 형태의 천연 지방, 쇠기름, 밀랍으로 만들어졌다. 18세기에 향고래에서 추출한 기름인 경랍은 최고의 양초를 만들어내는 데 쓰였다. 18세기 말에 평지 기름과 유채 기름이 훨씬 더 싼 값의 대체물로 사용되었다. 파라핀은 1830년에 처음으로 증류되었으며, 매우 깨끗이 타버린 높은 품질의 향기 없는 양초를

생산하였던 값싼 물질이었기에 양초 제작에 혁명을 불러 일으켰다. 최근에는 독립 구조로서 있으면서도 투명한 수지를 기반으로 만든 양초가 개발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파라핀 양초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향기를 첨가하고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B4%88>).

한국에서는 등잔이 만들기 쉽고 연료를 구하기 쉬워 일찍 필수품이 된 것에 반해, 초는 원료의 회소성과 제조법의 어려움으로 늦게 상용화되었다. 초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문헌과 삼국시대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촉'이라는 발전된 형태의 초로 보아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초가위를 보더라도 삼국시대 때 이미 초가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초가위의 양날에 반원형의 받침이 있어 초를 자를 때 부서지지 않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으로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등잔이 서민적인 모양을 한 데 비해, 초는 대부분이 화려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혼례 때 이용되었던 화촉(華燭; 화초)은 밀랍(蜜蠟; 꿀벌의 집을 끓여 짜낸 기름으로 만든 초)에 물을 들여 여러 가지 문양과 다양한 색깔을 내어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잘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화촉은 혼례 때 빼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고 신랑신부가 함께 자는 방을 화촉동방, 혼례 때 사용하는 기구를 화촉지구라고 하는 등, 화촉(화초)은 혼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초는 밀랍으로 만든 것을 최상으로 쳤다. 밀초는 물에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밀랍을 판 위에 놓고 굴대로 굴러 원통형으로 만든 다음 굴대를 빼고 심지를 끼우는 굴림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는 밀랍을 녹여 대나무 통 속에 넣고 굳히는 주촉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민층에서 애용되었던 지초(脂燭)는 소나 돼지의 지방을 끓여 찌꺼기 버리기를 여러 번 하여 깨끗한 기름을 걸러낸 다음 반으로 쪼갠 대나무 통에 넣어 굳힌 것이다.

초를 받쳐주는 촛대 또한 세련되고 우아한 형태를 하고 있다. 고구려의 것으로 평양 청암리에서 출토된 조도촛대, 신라의 것으로 쌍등식 청동촛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것인 금동감옥촛대 등은 모두 촛대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일면을 보여준다. 이것은 초와 촛대가 상류계층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인데, 제조과정이 복잡한 초 때문에 촛대 또한 귀하게 유통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초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제조법이 널리 알려져 일반인들이 사용하였고 그 이전에는 궁궐이나 한정된 상류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래 그림은 화초(밀초)로 모란꽃 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밀랍으로 만든 화초이다. 주로 궁중에서 사용되었고 일반인에게는 혼례 때만 사용이 허락되었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3304&cid=42962&categoryId=44340>).



Figure 1. 화초(밀초)



Figure 2. 화초(밀초)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3304&cid=42962&categoryId=44340>)

III. 촛불의 상징적 의미

1. 테메노스(Temenos)의 상징으로서의 촛불

촛불은 신성함을 상징한다(Cooper, 1978). 그러나 초에 불꽃이 없으면 신성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촛불은 불의 빛을 통해 신성함과 생명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빛은 우주 창조, 신의 계시를 뜻한다. 세계 속에 있는 보편적인 원리, 원초의 지성, 생명 진리, 광명, 형체가 없음, 신의 원천이다. 빛은 악이나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힘이며, 영광, 빛남, 기쁨이다. 촛불은 어둠 속에서 빛의 작은 섬의 역할을 한다. 그 섬의 공간은 매우 신성하며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강력한 보호의 공간이다(Cooper, 1978).

이런 신성한 보호의 공간으로 테메노스(Temenos)를 이야기 할 수 있다. 테메노스(Temenos)는 치료적인 보호의 역할이다(Friedman 외, 2011). 연금술에는 심리적 그릇에 대한 비유가 있다. 연금술에서는 심리적 그릇을 바스 헤르메티스(vas hermetis)라고 한다. 바스 헤르메티스는 라틴어로 헤르메스의 그릇이라는 뜻이다. 헤르메티스의 그릇은 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용기다. 그 안에 납을 담고 그릇을 밀봉한 뒤 열을 가하면, 그릇 안에 담긴 납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릇이 깨어져서 열기가 새어 나가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그릇을 테메노스(Temenos)라고 부른다. 테메노스는 고대 제사가 치러지던 신성한 장소를 말한다. 융이 말한 신역 Temenos이다(Jung, 1984).

헤르메스의 그릇은, 변화하려면 고압의 에너지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상담과정도 이와 같다. 온전히 인내하지 못하면 마음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뎌 내야 한다. 견디지 못할 때는 우리의 헤르메스 그릇은 조금씩 금이 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신성한 장소인 테메노스에서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고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박경숙, 2016).

그렇다면 촛불이 가진 테메노스로의 상징성을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설이(가명)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래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우울증을 주소로 내방했다. 설이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촛불을 켜고 후 치료실 촛불을 끈 상태에서 매우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선생님. 마음 안에는 화가 가득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매일매일 죽고 싶었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방안에 앉아 울고만 있었어요. 부모님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진 제가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잠도 자지 못했어요. 잠을 자면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 때 나는 촛불을 만나게 되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매일 울고 잠도 자지 못했던 나를 위해 엄마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으시고 촛불 하나를 놓아두고 가셨어요. 처음 촛불을 켜 날이 생깁니다. 촛불을 켜자마자 온 방이 밝아져서 처음에는 불을 껐어요. 그리고는 다시 켜는데 제 몸을 둘러싼 주위만 동그랗게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느낌이 무섭고 두려웠는데 점점 뭔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촛불의 불빛이 나를 꼭 보호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주신 것 같은 느낌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난 잠을 자도 살 것이니 편안하게 자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 때 가장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촛불을 켜고 자는 버릇이 생겼어요.”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18 session 이야기)

설이는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촛불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자신이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듯 미소를 보이며 한줄기 눈물을 흘렸다. 촛불이 만든 테메노스에서 신성함 가운데 마음의 보호받음을 느끼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그림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테메노스 문'이다. 석주 기둥 길 Colonnade Street의 서쪽 끝에 만들어진 테메노스 문은 페트라의 상업지역과 신성한 지역을 구분하던 문이다. 2세기경에 만들어진 3개의 아치를 갖고 있던 문으로 로마 양식과 비슷한지만 꽃무늬 조각 장식등으로 나바테안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테메노스 문을 들어서면 카스르 알-빈트(Qasr al-Bint)를 중심으로 한 성스러운 구역이다. 이곳을 지나 와디 무사를 건너 협곡 사이로 걸어가면 알-데이르 Al-Deir(수도원 The Monastery)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www.encyber.com).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을 위해서는 무의식의 그림자, 아니무스, 아니마를 만나게 된다. 이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진정한 작업과 투쟁을 경험하고 상처로 들어

가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테메노스(Temenos)를 만나게 된다(Friedman 외,2011). 진정한 작업과 투쟁을 통한 상처는 매우 고통스럽지만 신성한 테메노스(Temenos)의 안전하고 보호적인 공간에서 본래의 자기 자신을 찾고 변화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Figure 3. Petra Temenos in Jordan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detailViewSearch.jsp>)

2.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상징으로서의 촛불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은 죽음과 재생의 원형적인 모양을 보여준다. 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이행, 다른 존재차원으로의 전이, 재생하기 전에 맞는 죽음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 빛이 재생하기 전에 있던 암흑으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대개 이니시에이션에서는 부활, 광명, 승천에 앞서서 자연의 암흑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의 의례는 대개 지하 동굴이나 미궁에서 거행된다. 이니시에이션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런 장소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Jung, 1984).

촛불은 죽음을 상징한다(Cooper, 1978). 죽음은 생명의 보이지 않음이며 현세의 고별과 영원한 삶으로의 변화이다. 현세에서의 죽음에 뒤이어 영적인 재생이 이루어진다. 죽음은 한 존재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의 변화이며 육체와 땅, 혼과 영의 재결합이다.

촛불에서의 촛농은 그 무게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하강한다. 하강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은 이해하고 그것을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며, 죽음을 극복하는 일이다. 하강은 재생과 갱생 이전에 태초의 암흑으로 내려가는 것,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일이다. 하강은 죽어서 소생하는 모든 신들이 하는 여행이다. 하강은 이니시에이션(initiation)의

여행이며 죽어서 소생하는 모든 신들이 하는 여행이다(Jung, 1984).

이 부분에서 부정적인 정서 측면인 우울증과 관련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울증은 의식에서 이용할만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었음을 말한다. 에너지는 무의식에 정체되고 지금까지 돌보지 않은 내면 세계가 큰 세력을 가지고 의식을 압박하기에 이른다. 이때 느끼는 절망감, 허무감, 자살관념 같은 것은 자아의식이 한계에 달했음을 말한다. 우울증에서 느끼는 자살충동은 이 경우 낡은 자아의 태도가 죽고 새로운 인격으로 재생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부영, 1999). 우울증과 어두운 의식이 견디지 못해서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하여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고 그게 이니시에이션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다.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가 이니시에이션의 시작인 것이다.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나타난 촛불을 통해 이니시에이션을 위한 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1세의 여성이며, 반복적인 자살충동을 동반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13회기와 15회기에서 책상위에 촛불 하나를 키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촛불을 켜니 뭔가가 내 몸을 꼭 조였다가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신은 멍해지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멍해지면서 뭔가에 의해 내가 조정이 되어지는 상태처럼 느껴져요.”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13 session 이야기)

“촛불을 켜자마자 창문이 보였어요. 난 충동적으로 창문을 열고 그 위로 올라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무서웠어요. 창문에서 내려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고 언제 잠든 지도 모르게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촛불은 꺼져 촛농까지 모두 없어진 상태였어요. 다행스러웠고 편안했어요.”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15 session 이야기)

이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의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내 무의식 좀 봐, 보고 해결 좀 해봐.” 라고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무의식적인 에너지가 작동한 것은 이니시에이션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고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무의식과 우울은 어둡고 사로잡혀있다. 잘 알지 못하는 세계, 분명하지 못한 세계, 어두운 무의식을 보게 될 수 있는 역할을 촛불이 한 것이다.

빛과 어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융화가 되어 지지 않을 때 자살충동은 촛불을 통해 하강되었고 어두운 마음에서 다시 부활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의식이 탐구됨으로써 의식에 근접하게 된 촛불의 의미로 인해 본성의 심연에 있는 대극성과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로써 빛과 어둠을 아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내담자는 마음 안에서 이니시에이션을 경험한 것이다.

한 개인이 의식을 획득하려면 대극적인 요소들을 자신 안에 담아서 견뎌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갈등하며, 평온해지기를 반복하는 과정과 치유를 위한 어두운 무의식의 세계로의 하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유세연, 2016).

이니시에이션을 번역하면 성인식 혹은 통과의례이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이니시에이션은 과거의 나, 즉 어린아이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아이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다. 어린아이의 자아를 해체함으로써 성인으로 재탄생 하는 과정을 모든 이니시에이션은 띠고 있다(Friedman 외, 2011).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은 고통스러우나 그 시간들은 내담자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큰 사건이 되었다.

3. 의식화(Development of Consciousness)의 상징으로서의 촛불

촛불은 대표적인 의식의 상징이다. 특히 7개의 초는 3이란 신의 숫자와 4란 인간의 숫자의 결합으로 소우주와 대우주 혹은 인류와 신과의 관계를 의미한다(Robert A, 2006).

의식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의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무의식은 '의식되지 않은 것'이다. 무의식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의식의 내용에 동화시킬 수 있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그림자 이다(이부영, 1999).

의식화를 위해서는 그림자적인 측면을 만나야 한다. 그림자란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다. 그것은 나, 자아의 어두운 측면이다. 이것은 의식의 바로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내용으로 의식되지 못하고 미분화된 채로 남아있는 원시적인 심리적 경향, 심리적 특징들이다. 따라서 그림자는 우리 인격에 있는 부정적이며 열등한 측면들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도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자는 다른 어떤 원형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적 본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진화의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원형 중에서도 가장 강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림자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까닭에 자아가 처음 그림자를 의식 할 때는 자기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본래부터 악하고 부정적이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가려 있어서 다시 말해서 무의식 속에 버려져 분화될 기회를 잃었을 뿐이며, 그것이 의식되어 나오는 순간 그 내용들은 곧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부영, 1999).

여기에서 설이의 이야기에서 촛불을 통해 나타난 그림자가 의식되어 나오는 순간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설이는 촛불 여러 개를 책상 위에 켜놓고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비밀이라고 했다.

“선생님. 제 별명은 ‘실실이’ 에요. 맨날 실실거리고 웃고 다닌다고 친구들이 놀림조로 지어준 별명이예요. 마음속에 있는 항상 외로움과 우울함을 들리기 싫어서 고

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실실 웃고 다녔어요. 친구들이 제 우울함을 알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집에 오면 촛불을 켜고 자면서 다시 편안해 지려고 해요.” (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32 session 이야기)

설이는 웃음이라는 방어기제를 통해 우울이라는 자신의 그림자를 억압했고 학교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들킬까봐 불안해했던 마음을 촛불을 통해 위로받았다. 또한, 그림자의 부정적인 측면은 촛불을 통해 긍정적으로 의식화되었다.

또한, 촛불을 통한 그림자의 의식화의 발달 과정을 로마신화 프시케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시케는 '영혼' 또는 '나비'를 뜻하며, 영어로는 사이키(psyche)로 읽는다.

『프시케는 어느 왕국의 세 공주 가운데 막내로서 미모가 빼어나 미의 여신 비너스의 질투를 받았다. 비너스는 아들인 사랑의 신 큐피드에게 프시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의 품에 안기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나 큐피드는 프시케의 미모에 빠져 부부가 되었다. 큐피드는 프시케에게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영원히 헤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동생을 시기한 두 언니는 프시케에게 남편이 괴물일지도 모르니 밤에 그의 얼굴을 확인해 보라고 부추겼다. 마음이 흔들린 프시케가 촛불을 밝히고 살펴보니 침상에서 잠자는 사람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의 신이었다. 이 때 등불의 촛농이 어깨에 떨어져서 잠에서 깨어난 큐피드는 프시케의 불신을 꾸짖고는 떠나버렸다(Gardner, 1999).』

이것은 로마신화에 있는 프시케의 이야기이다. 프시케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어두운 불신이라는 무의식의 그림자가 촛불을 통해 의식화되었고 촛농으로 하강되어 잠에서 깨어난 큐피트로 인해 자신의 무의식에 존재한 그림자를 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프시케가 존재한다. 여성이 자기 안에서 프시케를 만날 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면에서 모든 여성은 부분적으로 왕의 딸, 즉 공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의 여성 안에 있는 프시케적인 부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매우 사랑스럽고 완전하며 심오하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거리가 느껴질 때 여성은 자기 내면에서 프시케를 만나게 된다. 이 순간은 대단히 고통스러우며, 참기 어려울 정도로 외롭다. 이것이 바로 프시케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고 다스려야 할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프시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렇지만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할 것이지만 아무도 프시케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이런 특성이 존재한다. 만일 여성들이 자기 안의 프시케다운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자기 안의 무의식적 특성을 의식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레 고귀한 진화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매우 아

롭다운 것이다(Robert A, 2006).

우리의 무의식은 때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인식과 감정, 행동에서의 균형을 잡도록 유연한 대처를 하도록 해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무의식이라는 어두운 영역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잠재성들이 존재하며, 그러한 이유로 마음의 눈을 뜨고 늘 깨어 그림자들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이승희, 2014).

그림자의 의식화에는 적당한 자아의식의 안정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융은 말하기를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에 관한 앎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삶의 과제에 한 작은 부분을 해결한 것이다. 즉 그는 최소한 개인적 무의식을 극복한 것이다' 라고 했다(Jung, 1984).

IV.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촛불의 상징성

1. 촛불을 통해 테메노스를 나타낸 내담자의 사례

그녀는 38세 여자이다. 호소한 문제는 우울과 상실감이다. 전문직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 일터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에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Figure 4. Sandpicture with Candles in Session #8

이 모래그림을 모두 꾸민 후 그녀는 "잠시 전등을 끄고 눈을 감아도 될까요? 라고 말했다. 눈을 감은 뒤 뭔가 생각하는 듯 했고 그리고 촛불을 켜 후 어둠 속에서 상자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 다음의 말을 이어갔다.

"이 여자가 매우 편안해 보여요. 쉽니 좀 필요해요. 이 여자의 쉽니 촛불을 켜는 때 가능해요. 촛불을 켜니 아늑하게 느껴지고 제 몸도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8 session 이야기)

그녀는 모래를 태양의 모양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태양은 우주의 지고의 힘, 만물을 꿰뚫어보는 신과 그 힘, 우주의 심장, 존재의 중심을 상징한다(Bradway, 2001). 그 안에 여성성을 상징하는 원형이 응크리고 있고 그 원형을 촛불이 밝히고 있다. 또한, 그 주위를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다.

그녀는 이 상자를 모두 꾸민 후 전등을 끈 상태로 잠시 명상을 했고 그 이후 촛불을 켜 후 어둠 속에서 상자를 관찰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프시케의 외로운 여성성이 촛불의 신성한 공간을 통해 보호받음으로써 외로운 감정과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된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한 의식 안에서 촛불의 공간을 통해 테메노스(Temenos)를 경험하면서 보호받음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듯하다.

2. 촛불을 통해 이니시에이션을 나타낸 내담자의 사례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 여아이다. 내방했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지 않은 채 웃는 모습과 반지 3개, 목걸이 2개, 팔찌 2개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머니가 호소한 아동의 문제는 때를 많이 부리며 자기중심적이라고 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줄 때까지 조르고 때 부리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한, 어머니를 항상 찾으면서도 무서운 말로 공격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어머니가 집에 없다고 하면 화를 내고 학교에서도 1교시 끝날 때마다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가위로 찢러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Fig 5는 아동이 모래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촛불을 사용한 회기이다. 아동은 피겨 하나 하나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했고 특히 거미와 뱀을 선택할 때 징그럽고 무섭다고 하면서도 눈빛에서는 강한 분노의 에너지가 느껴졌다. 꼭 거미와 뱀을 죽일 것 같은 분노의 에너지였다. 또한, 초에 불을 붙인 후 촛농이 하얀 모래위에 떨어지도록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상자를 모두 꾸민 후 아동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Figure 5. Sandpicture with Candles from Session #17

“촛불 세상이예요. 이야기 안하고 싶은데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것은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예요. 이 안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이상한 괴물들이 있어서 놀랄 거예요. 어른 아이들 모두 입장할 수 있어요. 이제 전등을 꺼야 해요. 깜깜한 시간동안 괴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촛불에 촛농이 생길 때까지 촛불을 붙이고 모래에 촛농을 뿌릴 거예요. 왜냐하면 앤 독거미와 독사 괴물 이어서 촛농을 무서워하거든요.”(모래놀이치료 과정 중 17 session 이야기)

아동은 이 모래그림을 모두 꾸민 후 초에 불을 켜지 않은 채로 치료실의 불을 끄고 이 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괴물들이 나온다고 했다. 아동은 괴물이 독거미와 독사라 했으며 피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강한 분노의 에너지가 치료자의 몸이 떨릴 정도로 고스란히 느껴졌다. 거미는 긍정적으로는 창조적(거미줄)이나 부정적으로는 잔혹한 죽음을 의미한다 (Bradway, 2001). 아동은 독거미라고 했으니 잔혹한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뱀은 입문 의식의 주인으로 '초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Bradway, 2001) 신화 속에서 콤플렉스 혹은 강력한 힘을 내는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동은 어머니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부정적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아동의 콤플렉스이다.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분노감에서 아동은 심리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듯하다. 어머니에게서 보호받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집을 비우는 어머니를 통해 분리감을 느꼈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낀 듯하다. Neumann(1963)은 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무의식이 잔

인한 어머니로 알아차리게 된다고 했으며 이를 독거미와 독사로 투사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촛불로 촛농을 만들어 모래 위에 뿌렸고 독거미와 독사를 위협한다고 했다. 촛농을 통해 무의식으로 하강했고 자신의 콤플렉스와 마주하면서 이니시에이션의 여행을 시작한 듯 했다.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어머니 원형을 만나 분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3. 촛불을 통해 그림자의 의식화를 나타낸 내담자의 사례

그녀는 16세 여아이며 중학교 3학년이다. 주호소는 불안, 우울, 반항심이며 특징적인 부분은 또래관계에서 집단폭력 가해자이다. 지적능력은 80으로 borderline수준이며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가정 안에서 방임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며 말썽을 부리는 이유는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은 욕구로 비롯된 것이었다.



Figure 6. Sandpicture with Candles from Session #12

그녀는 오랜 시간동안 예쁜 하트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다 만든 후 "예뻐요."라고 한마디만 하였고 무표정의 모습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내담자가 모래그림을 만들 때의 치료자의 느낌은 불안했다. 예쁜 하트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표정은 외롭고 우울해보였다. 또 초에 불을 켤 때는 웬지 불을 낼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모래그림의 모습은 하트모양이다. 하트는 마음, 심장, 사랑하는 사람의 기호를 상징한다.

하트 상징은 가장 오래된 상징 중의 하나이다. 형상적으로 하트 모양은 중세시기에 불과 비상을 상징하는 기호와 유관하며, 또한 결합 혹은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기호와 유관하다.

하트 상징은 대부분의 주요 문화에서 나타난다. 그리스도교의 믿음, 희망, 사랑 중에서 사랑을 나타내며, 아즈텍, 힌두, 불교도, 무슬림, 유대인, 켈트인, 도교도, 아프리카인에게서도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600-400년경 꽃과 함께 사랑의 신인 에로스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었다(Mitford, M 외, 2010).

그녀는 현실에서 사랑에 대한 욕구를 갈망한다. 그러나 그 욕구에 대해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하트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서의 모습이다. 그러나 무의식은 치료자에게 전이된 감정인 화가 가득하며, 외롭고, 불안한 모습이다. 이것이 촛불을 통해 무의식이 의식화되어 나타나 치료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촛불'의 상징성을 내담자의 이야기 및 신화, 모래그림을 통해 신성한 보호 공간으로의 '테메노스', 재생을 위한 과정에서 만나는 죽음으로의 '이니시에이션' 그리고 자기의 무의식적 특성을 의식으로 전환하여 자연스레 고귀한 진화를 시작하는 '의식화'로 나누어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촛불은 자기의 몸을 태움으로써 밝은 빛을 내어 어둠을 밝힌다. 촛불이란 자신이 타면서도 어둠을 밝히는데 그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촛불이 말하는 탄생과 죽음, 부활의 상징성과 연결되었고 이러한 상징성을 내담자의 이야기 및 모래그림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촛불은 내담자들에게 무의식을 만나게 했고 그 기억 속의 외상(trauma)에 머무르게 했다. 그 여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슬프고 외로운 부정적 감정과 만나야 했다. 그들은 촛불이 만든 테메노스에서 신성함 가운데 마음의 보호받음을 느꼈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새로운 에너지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콤플렉스를 마주할 수 있게 했고 이니시에이션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이니시에이션의 여정은 촛농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정이 시작되었을 때 무의식은 우울함이라는 어두움에 사로잡혀있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세계, 분명하지 못한 세계, 어두운 무의식을 보게 될 수 있는 역할을 촛불이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들킬까봐 불안해했던 마음을 촛불을 통해 위로받았고 그림자의 부정적인 측면은 촛불을 통해 긍정적으로 의식화되었다.

내담자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견디는 과정이 필요했고 가장 아래로 하강하면서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최소한의 개인적 무

의식을 극복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의식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촛불은 그들에게 신성한 보호의 공간에서 의식화를 이루는 중요한 상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박경숙 (2016). 문제는 저항력이다: 무기력보다 더 강력한 인생 장벽. 서울: 와이즈베리.
- 유세연 (2016). 땃돌: 대극의 합일과 새로운 의식창조의 상징.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7(1), 47-64.
- 이부영 (1999). 그림자. 서울: 한길사.
- 이승희 (2014). 쥐와 고양이: 그림자의 필연적 대극.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5(2), 35-56
- Bradway, K. (2001). Symbol dictionary: Symbolic meanings of sandplay images. *Journal of Sandplay Therapy*, 1(1), 96-100.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New York: Thames & Hudson. (Trans. Korean into 1994).
- Harriet S. Friedman & Rie Rogers Mitchell. (2011). *Supervision of Sandplay Therapy*. Korean Society of Sandplay Therapy. (Trans, Korean into 2011).
- Jane Gardner. (1999). 로마 신화. 서울: 범우사.
- Mitford, M., & Wilkinson, F. (2010). *SIGNS & SYMBOLS*. London: Dorling Kindersley Ltd. (Trans. Korean into 2010)
- Robert, A. J. (2006).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서울: 동연.
- Neumann, E. (1963). *The great moth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ung, C. G. (1984). *Menschenbild und Gottesbild*. CW4. Princeton: Bollingen/C. G. Jung Institute of Korea. (Trans. into Korea in 2007)
-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C%B4%8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3304&cid=42962&categoryId=44340>
- <http://www.doopedia.co.kr/search/encyber/detailViewSearch.jsp>

투고일 : 2016. 10. 30
수정일 : 2016. 11. 30
게재확정일 : 2016. 12. 01